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원화강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

- 원/달러 환율이 지난 주 1,100원/달러까지 하락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원화강세 현상이 나타남.
 -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중동사태와 일본지진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냄.
 - 수출이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45.1%, 16.9%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3월에도 월간 최대 수출액인 486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원화강세가 가속화됨.
- 원화강세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반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,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임.
 -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·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경우 교육효과로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 - 원화강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내수기업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, 물가상승도 완화시킬 것임.
- 향후 상당기간 원화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.
 -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주요 7개국(G7)의 엔/달러 시장 개입 이후 엔화약세가 이어지는 등 환율의 하락요인이 많아 원화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일부 전문가들은 원/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다른 일각에서는 원화강세가 물가 부담을 줄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함.

(원화강세, 중앙일보, 4/5)